

# 3연승 질주 기세 오른 광주FC “전북 나와라”

### 펠리페 3게임 연속골...SK에 2-1 승 K리그1 초반 부진 딛고 상승세 21일 1위 전북 상대 4연승 도전

3연승까지 내달린 광주FC가 전북현대의 아성에 도전한다. 광주가 21일 오후 6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을 상대로 2020 K리그1 8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4연승에 도전하는 무대다.

광주는 지난 17일 안방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7라운드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3승 1무 3패로 승점 10점을 채우며 7위로 올라섰다.

6라운드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골 침묵을 깨 펠리페가 지난 부산전에 이어 3경기 연속 골로 포효했고, 부상에서 돌아와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김정환까지 골맛을 보면서 광주의 분위기가 뜨겁다. 살아난 공격에 최근 3경기를 2실점(페네티리 1실점)으로 막은 수비까지, 광주는 완벽한 공수밸런스를 과시하고 있다.

손발이 적적 맞고 있는 광주가 이번에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상대한다.

부담 많은 쪽은 전북이다. 전북 입장에서는 '약체'로 꼽히는 상대와의 승부다. 2위 울산 현대에 승점 1점 차로 쫓기고 있는 만큼 1위 수성이라는 부담감도 더해졌다.

광주는 잔류를 위해 반드시 꺾어야 했던 부산과 인천을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면서 승점에 대한 부담을 덜고, 1위 전북을 상대하게 됐다.

광주는 전북의 부담감을 이용해 끈끈한 팀워크로 승부를 하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올 시즌 6승 1패(승점 18점)를 기록하면서 K리그 1위에 올라섰다.

탄탄한 선수층을 바탕으로 선두 질주를 하고 있지만 전북에도 빈틈은 있다.

전북은 올 시즌 12득점 4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7경기 중 5경기가 한 골 차 승부였다. 효과적으로 상대 골문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부산, 인천과 같이 수비를 단단히 한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부산에는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을 허용하는 등 2-1 신승을 거뒀다. 인천에도 1-0으로 1점 차 승리를 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 최소실점을 보여준 팀이다. 올 시즌에도 빠르게 수비 안정감을 더하면서 상대를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측면 자원들이 역을 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고, '해결사' 본능을 깨운 펠리페는 4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3연승이라는 결과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뛰어야 득점"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승을 다투는 울산현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전북전도 광주만의 색깔을 살려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4라운드 울산전 무승부 이후 반전을 이룬 광주가 전북을 상대로 4연승에 성공할지,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전주상'에 쏠린다.

광주는 전북의 부담감을 이용해 끈끈한 팀워크로 승부를 하겠다는 각오다.

전북은 올 시즌 6승 1패(승점 18점)를 기록하면서 K리그 1위에 올라섰다.

탄탄한 선수층을 바탕으로 선두 질주를 하고 있지만 전북에도 빈틈은 있다.

전북은 올 시즌 12득점 4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7경기 중 5경기가 한 골 차 승부였다. 효과적으로 상대 골문을 공략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특히 부산, 인천과 같이 수비를 단단히 한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부산에는 선제골을 넣고도 동점을 허용하는 등 2-1 신승을 거뒀다. 인천에도 1-0으로 1점 차 승리를 했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 최소실점을 보여준 팀이다. 올 시즌에도 빠르게 수비 안정감을 더하면서 상대를 봉쇄하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측면 자원들이 역을 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들고 있고, '해결사' 본능을 깨운 펠리페는 4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다.

광주 박진섭 감독은 "3연승이라는 결과를 내기란 쉽지가 않다.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뛰어야 득점"이라며 "하지만 우리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우승을 다투는 울산현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만큼, 전북전도 광주만의 색깔을 살려 자신감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4라운드 울산전 무승부 이후 반전을 이룬 광주가 전북을 상대로 4연승에 성공할지, K리그 팬들의 시선이 '전주상'에 쏠린다.



펠리페(광주FC)가 지난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7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전반 28분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곡성·나주·순천·광양 스포츠클럽, 복싱·아이스하키 등 10개 종목 운영

### 대한체육회 육성지원 사업 공모 선정

곡성·나주·순천·광양 스포츠클럽이 복싱, 아이스하키 등 10종목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게 됐다.

전남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2020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2차 공모에서 나주스포츠클럽을 비롯한 4개 클럽에서 신청한 10개 종목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선정된 4개 클럽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총규모 2500만원을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클럽을 운영한다.

유형별로 신규 전문 선수반 지원에서 곡성클럽(복싱)을 비롯해 나주클럽(농구, 골프), 순천클럽(배드민턴, 탁구, 태권), 광양클럽(아이스하키, 야구)이 지원하여 8종목 모두 선정됐다. 해체운동부 흡수 클럽 선수반 지원 부문에서도 순천과 광양클럽이 포함됐다. 순천클럽은 순천매산중학교 축구부를, 광양클럽은 광양중학교 축구부를 흡수해 선



순천공공스포츠클럽의 태권 수업. <전남도체육회 제공>

수반으로 장단할 예정이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선수 주변 확대를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위한 것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개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며 34개 종목, 회원 2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재무 회장은 "스포츠클럽의 선수반 장단지원은 전문·생활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확고히 하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이

##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 컨디셔닝 지원 사업 시작

광주시체육회 스포츠과학센터(이하 센터)가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컨디셔닝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는 최근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컨디셔닝 지원을 위해 건강운동관리사 2명과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트레이너 1명을 채용했다.

컨디셔닝 지원은 사체회의 2020년 신규사업이다.

현재 시체육회 유도 선수, 조선대 배드민턴 선수들이 컨디셔닝 지원을 받고 있다. 시체육회는 다양한 종목 선수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체육회에 등록된 광주 지역 선수 및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들이면 누구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센터는 지난해 전국규모 대회와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과학과 컨디셔닝을 아우



광주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가 조선대 배드민턴 선수들의 체력강화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른 융·복합 지원에 나서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제10회 전국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이 역대 최

고의 성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센터는 2015년 개소 이후 2년 연속 지역 스포츠과학센터 운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대구센터와 함께 우수등급을 차지했다. 연구부문에서는 센터장과 선임 연구원이 각각 2018, 2019년에 대한체육회 체육상(연구상)을 수상

## EPL 재개...맨시티, 10명 뺀 아스널에 3-0 완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100일 만에 돌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프리미어리그는 1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에스턴 빌라-세필드 유나이티드 경기로 2019-2020시즌을 재개했다.

에스턴 빌라와 세필드는 0-0으로 비겼다.

시즌 재개 후 첫 골은 이어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아스널전에서 나왔다.

맨시티는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3-0으로 완승했다.

맨시티는 이날 승리로 19승 3무 7패(승점 60)가 돼 2위를 유지했다. 1위 리버풀(27승 1무 1패-승점 82)과는 승점 22점 차다. 9위 아스널은 9승 12무 7패로 승점 40에 머물렀다.

이날 양 팀 선수들은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지지하는 의미에서 유니폼에 자신의 이름 대신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문구를 달고 뛰었다.

경기 초반부터 아스널에 악재가 겹쳤다.

전반 7분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24분 수비수 파블로 마리가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아스널의 경기 구상이 틀어졌다.

마리와 교체된 투입됐던 아스널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의 빠픈 실책으로 맨시티가 전반 추가 시간 기선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오른쪽 측면에서 케빈 디브라우너가 올린 크로스를 루이스가 제대로 걸어내지 못하는 바람에 뒷공간을 파고들던 라힘 스털링에게 연결됐고, 스털링이 골문 오른쪽에서 강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맨시티는 후반 6분 루이스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디브라우너가 침착하게 차 넣어 한발짝 더 달아났다.

페네티박스 오른쪽을 파고 들어가던 리야드 마흐레즈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루이스는 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해 아스널은 남은 시간을 10명으로 싸워야 했다.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필 포든의 추가 골로 시즌 재개 후 첫 경기를 기분 좋은 대승으로 장식했다.

## 나폴리, 유벤투스 꺾고 6년만에 코파이탈리아 우승

나폴리가 이탈리아축구협회(FA) 컵대회인 코파이탈리아에서 6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나폴리는 18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열린 유벤투스와의 2019-2020시즌 코파이탈리아 결승에서 전·후반 90분 동안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이로써 나폴리는 2013-2014시즌 이후 6년 만이자 통산 6번째로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반면 2년 만이자 통산 14번째 우승을 노렸던 유벤투스는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올 시즌 세리에A 6위인 나폴리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운 리그 1위 유벤투스를 맞아 대등하게 맞섰다.

나폴리로서는 수차례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전반 24분 로렌초 인시네의 프리킥이 골대를 맞고, 후반 추가 시간 코너킥에 이은 나폴리 막시모비치의 헤딩슛은 유벤투스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의 선방에 막혔다.

하지만 나폴리는 결국 승부차기에서 웃었다.

나폴리는 4번째 키커까지 모두 골을 넣었지만 선축한 유벤투스는 1, 2번째 키커인 파올로 디발라와 다닐루가 거푸 실축하는 바람에 무릎을 꿇었다.

이날 승리로 지난해 12월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후임으로 나폴리 지휘봉을 잡은 젠나로 가투소 감독은 사령탑으로서 첫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결백
2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언더워터
3관	사라진 시간, 위대한 쇼맨, 아이 캔 온리 이매진, 8인: 최후의 결사단
4관	사라진 시간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에어로너츠
9관	결백
7관 씨네커를	사라진 시간, 아구스녀, 열혈형사
8관 씨네커를	침입자, 열혈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방탄소년단**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칠가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